

전북 첫 농민수당·알짜 식품기업 유치·노을대교 성공

‘농생명식품산업 한반도 수도로’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누구도 해내지 못한 30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의 국가계획반영을 성공시키며 군민의 힘을 풀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인천전역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전북 첫 농민수당을 지급했고, 전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명품 농산물을 가공해 '높을고장' 브랜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역내 일자리 창출효과도 높은 알짜비기 식품기업도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농민군수·효자군수·서민군수라는 구호로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고창군의 성과를 분석해 봤다.



국도 77호선 부안·고창 등 주요 국도건설 반영 성과

고창발 농민 공익수당
공익적 가치 전국적 확산 일조

기업유치 통한 남녀노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삶의 질 기여



▶ 유기상 군수의 포부

“세계유산도시 강점 살리고 농생명 자원 특화

▲부청대교는 실패했지만 민선기 유기상포 노을대교는 성공

유기상 군수는 3년 전 취임 당시 노을대교 성공을 약속했다. 기존 부청대교로 부르던 것을 노을대교로 바꿔 새로운 전략을 짰다. 경제성이 높지 않던 차량통행 측면에 관광과 물류기능을 더했다. 특히 부족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비용 공법으로 조정하는 등 공사비 비 최소화, 연체수요 확보 방안 등 대응을 통해 경제성 상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문턱을 낮도록 찾아가 설득한 끝에 2019년 상위계획인 '제2차 국토종합계획'에 휘황하던 교류거점으로 도약을 위한 글로벌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국도 77호선의 부안·고창 등 주요 국도 건설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 때맞춰 서남권통역발전단지 조성사업,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입주,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에 이어 재료를 활용하여 정부를 설득했다. 유기상 군수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세로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은 물론 동호회 현장을 함께 찾으며 노을대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시켰다. 여기에 고창·부안 노을대교 조기착공 서명운동 등이 이어지며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고창군은 조기착공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디자인·비용절감·조속주진 등을 위해 설계·시공업체의 일괄수주방식 변경(단기) 추진을 전북도·정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견의할 방침이다.

▲농민군수 - 고창에서 만끽하는 농사 짓는



등 농민불편이 크게 줄었다. 농민들은 이를 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회로 필요한 농기계를 예약하면 전문가들이 전문 운송 차량을 이용해 미들회관까지 배달해 준다.

고창군은 올 하반기 북부권(흥덕·성내·신립·부안) 사업소까지 겁집해 농기계 임대·운송서비스를 광역별(4개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반경10km 이내, 즉 고창군 관내 동서 남북 어디서든 15분이면 집 앞까지 농기계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실현되는 셈이다.

▲서민군수 -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창' 국내 최고 식품기업 입주계약

고창군이 취업하기 좋은 일자리 도시·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뜨고 있다. 우수기업의 공격적 유치와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면서 질과 양 모두에서 타 도시를 압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뽑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북 1위, 전국 5위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전북도 일자리 정책평가에서 3년(2021·2020년 최우수·2019년 우수상)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대업을 이뤄냈다. 앞서 지난해는 '고용노동부 전국 일자리 대상 사업부문'에서 '고창군 로컬잡센터'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오랫동안 군민들을 애타게 했던 고창일반산업단지도 2019년 연말 유치권 해결에 이어 단숨에 기업유치까지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고구마 가공공장과 고품질쌀 가공시설은 물론, 문화체육센터까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이다.

기업유치를 통한 남녀노소 맞춤형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의 효과는 커다. 개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주민 삶의 질도 높이졌다. 2020년 전북 사회조사에서 군민의 '삶 만족도'는 69점(10점 만점)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 평균(6.2점) 보다도 0.7점이 많았다.

▲효자군수 - '이미용비' 지원 100세 진지 등 섬김의 경로복지정책

'효자군수' 유기상 고창군수와 각 읍면 지역들은 코로나19로 삶의 질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챙기는 데 각별히 신경 썼다. 특히 코로나19 신속지원·진단검사기트 선제적 도입은 물을 백신접종 과정에서도 집 앞까지 모시러 가는 차량이 등, 따뜻한 안부전화 등으로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기며 곳곳에서 칭찬과 박수갈채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슬겁고 살맛나는 노후, 배려의 고창군정'을 목표로 다양한 경로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이·미용비 지원사업(5776명) ▲100세 어르신 만수무강 축하전지사업(21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148명) ▲무료급식 지원사업(150명) ▲거동불편자보호보조기기지원(247명) ▲무장고리자연경지조성사업(37억)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176억)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한시생활비 지원(21억), 공의형 노인 일자리 인건비 선지급(4억), 공익형 노인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1.26억/4억) 등을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상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손씻기



마스크착용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